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한글 명칭 변경 관련(10.7) 보도자료 스크랩

2024.10.07.(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경북일보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내일부터 한글 명칭 변경 새출발	
2	신문	대경일보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 변경	
3	인터넷	대구신문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 변경	
4	인터넷	쿠키뉴스	NEAR “간판 바꿔 단다”...‘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새 출발	
5	인터넷	경북신문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한글 명칭 변경	
6	인터넷	위키트리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한글 명칭 변경	
7	인터넷	경북브리핑뉴스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한글 명칭 변경	
8	인터넷	데일리 대구경북뉴스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 변경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8일부터 한글 명칭 변경 사용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4.10.06 19:57 □ 2면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현판.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 단체연합(NEAR·사무총장 임병진)은 8일부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한글 기관명칭 변경은 기존 한글명칭이 13자로 너무 길고, 일반인이 기존 기관 명칭만을 듣고는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라는 성격을 잘 이해 못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회원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오는 2026년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8일에는 포항 라한호텔에서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포항시 장상길 부시장, 역대 NEAR사무총장, 주부산 외교단, 한동대 최도성 총장, 영남대 이경수 부총장, 국내 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 등 80여 명이 참석, NEAR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NEAR DAY행사에서 변경 한글명칭 현판식을 가진다.

NEAR 임병진 사무총장은 “NEAR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이번 한글 명칭 변경을 계기로 지방시대를 맞

이해 NEAR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의 다자교류플랫폼을 구축, 동북아지방정부 협력을 선도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화관광 등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다자교류를 통해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간 다자교류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NEAR(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는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방정부가 모여 결성된 후 회원가입이 증가해 몽골, 북한 포함 6개국의 정회원 82개, 준회원 2개, 특별회원 1개, 옵서버 5개 등 90개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의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김창원 기자 kcw@kyongbuk.com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 변경

✎ 김대호 기자 ④ 승인 2024.10.06 09:47

명칭 변경을 통한 국제기구 이미지 쉽게 이해...8일 포항 라한호텔서 NEAR DAY행사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출범 30주년을 맞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한글 명칭을 변경한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제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 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임병진)은 10월 8일부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한글 기관명칭 변경은 기존 한글명칭이 13자로 너무 길고, 일반인이 기존 기관 명칭만을 듣고는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라는 성격을 잘 이해 못해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한글명칭을 보고 기관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회원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2026년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 포항시 장상길 부시장, 역

대 NEAR사무총장, 주부산 외교단, 한동대 최도성 총장, 영남대 이경수 부총장, 국내 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 등 80여명이 참석, NEAR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NEAR DAY행사에서 변경 한글명칭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NEAR 임병진 사무총장은 “NEAR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이번 한글 명칭 변경을 계기로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NEAR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의 다자교류플랫폼을 구축, 동북아지방 정부 협력을 선도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화관광 등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다자교류를 통해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간 다자교류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EAR(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는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가 모여 결성된 후 회원가입이 증가하여 몽골, 북한 포함 6개국의 정회원 82개, 준회원 2개, 특별회원 1개, 옵서버 5개 등 90개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의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김대호 기자 homigod@naver.com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 변경

김상만 | 승인 2024.10.06 17:00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 단체연합(NEAR)은 8일부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한글 기관명칭 변경은 기존 한글명칭이 13자로 너무 길고, 일반인이 기존 기관 명칭만을 듣고는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라는 성격을 잘 이해 못해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한글명칭을 보고 기관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회원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NEAR(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는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방정부가 모여 결성된 후 회원가입이 증가해 몽골, 북한 포함 6개국의 정회원 82개, 준회원 2개, 특별회원 1개, 옵서버 5개 등 90개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의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26년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 포항시 장상길 부시장, 역대 NEAR사무총장, 주부산 외교단, 한동대 최도성 총장, 영남대 이경수 부총장, 국내 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 등 80여명이 참석해 NEAR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NEAR DAY 행사에서 변경 한글명칭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NEAR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이번 한글 명칭 변경을 계기로 지방시대를 맞아 NEAR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의 다자교류플랫폼을 구축, 동북아지방정부 협력을 선도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화관광 등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다자교류를 통해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간 다자교류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만**
대구신문

쿠키뉴스 > 전국대구·경북

NEAR “간판 바꿔 단다”...‘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새 출발

☑ / 기사승인 : 2024-10-04 13:57:04

기존 한글 명칭 ‘변경’
국제기구 이미지 ‘부각’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 현판. NEAR 제공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 새 간판을 단다.

NEAR 사무국에 따르면 8일부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한글 명칭을 변경한다.

이는 기존 한글 명칭이 너무 길고 일반인이 국제기구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내린 결정이다.

현재 국내 회원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현판식은 2026년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8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열리는 'NEAR DAY'때 진행된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한글 명칭 변경을 계기로 동북아지방정부 협력을 선도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NEAR(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는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단체를 주축으로 창설된 후 현재 90개 단체가 회

원으로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NEAR 사무국은 경북 포항에 있다.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한글 명칭 변경

이준형 기자 wansonam01@naver.com 입력 | 수정 2024.10.07 12:35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명칭 변경
명실상부 지방정부간 다자교류 국제기구 위상 제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한글 명칭을 변경했다. 사진제공=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동북아6개국 82개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임병진)은 8일부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한글 기관명칭 변경은 기존 한글명칭이 13자로 너무 길고, 일반인이 기존 기관 명칭만을 듣고는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라는 성격을 잘 이해 못해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한글 명칭을 보고 기관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회원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2026년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 포항시 장상길 부시장, 역대 NEAR사무총장, 주부산 외교단, 한동대 최도성 총장, 영남대 이경수 부총장, 국내 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 등 80여명이 참석해 NEAR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NEAR DAY행사에서 변경 한글명칭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NEAR 임병진 사무총장은 "NEAR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이번 한글 명칭 변경을 계기로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NEAR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의 다자교류플랫폼을 구축, 동북아지방정부 협력을 선도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화관광 등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다자교류를 통해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간 다자교류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NEAR(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는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방정부가 모여 결성된 후 회원가입이 증가해 몽골, 북한 포함 6개국의 정회원 82개, 준회원 2개, 특별회원 1개, 옵서버 5개 등 90개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의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한글 명칭 변경

2024-10-05 20:16

+ - 📄 f 🐦 ☰

명칭 변경을 통한 국제기구 이미지 쉽게 이해
NEAR DAY행사에서 현판식 개최

WIKITREE TV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현판/이하 NEAR

네이티브 광고 베스트



"올해는 마셔볼 수 있
까?" 전국 맥덕들 애



제로 커넥트 박스로 '
의 가전' 경지에 오른



"1급 발암물질이..." 쌀
관 대충 하면 안 되는



"삼성, 현대, LG도 총출
동" 세계 최대 ICT 박.



애매하게 남은 밥, 맛
게 오래 보관하는 법

[경북=이창형 기자]=동북아6개국 82개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임병진)은 10월 8일부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글 기관명칭 변경은 기존 한글명칭이 13자로 너무 길고, 일반인이 기존 기관 명칭만을 듣고는 광역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라는 성격을 잘 이해 못한다는 점, 한글명칭을 보고 기관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회원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베스트 클릭



비트버니 퀴즈 10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관할 지도

2026년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10월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 포항시 장상길 부시장, 역대 NEAR사무총장, 주부산 외교단, 한동대 최도성 총장, 영남대 이경수 부총장, 국내 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 등 80여명이 참석, NEAR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NEAR DAY행사에서 변경 한글명칭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NEAR 임병진 사무총장은 “NEAR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이번 한글 명칭 변경을 계기로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NEAR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의 다자교류플랫폼을 구축, 동북아시아지방정부 협력을 선도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화관광 등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다자교류를 통해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간 다자교류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EAR(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는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 지방정부가 모여 결성된 후 회원가입이 증가해 몽골, 북한 포함 6개국의 정회원 82개, 준회원 2개, 특별회원 1개, 옵서버 5개 등 90개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의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뮤 온라인 신규 클래스 알케미스트 출시!
뮤 온라인

[Read Next Story >](#)

🏠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기사제보 copyright



1. 침묵 일관 지연황재기
결혼 2년 만에 결국 C

3. 700억 들었는데...'흑막
요리사'에 밀린 넷플릭

4. [속보] 손흥민, 결국 디
팀 소집 해제...홍현석

5. 물오른 미모 뽐낸 송
인, 조용히 새로운 시



막내 작가 외면한 '1박2일' 새 멤버... 역대급
인성 논란 터졌다



[속보] "축구 감독 선임 다시 해야...정몽규 4
연임 불허" 유인촌 폭탄 발언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한글 명칭 변경

✎ 황태진 기자 ⌚ 승인 2024.10.05 20:18

명칭 변경을 통한 국제기구 이미지 쉽게 이해

NEAR DAY행사에서 현판식 개최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현판/이하 NEAR

동북아6개국 82개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임병진)은 10월 8일부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글 기관명칭 변경은 기존 한글명칭이 13자로 너무 길고, 일반인이 기존 기관 명칭만을 듣고는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라는 성격을 잘 이해 못한다는 점, 한글명칭을 보고 기관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회원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관할 지도

2026년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10월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 포항시 장상길 부시장, 역대 NEAR사무총장, 주부산 외교단, 한동대 최도성 총장, 영남대 이경수 부총장, 국내 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 등 80여명이 참석, NEAR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NEAR DAY행사에서 변경 한글명칭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NEAR 임병진 사무총장은 “NEAR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이번 한글 명칭 변경을 계기로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NEAR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의 다자교류플랫폼을 구축, 동북아지방정부 협력을 선도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화관광 등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다자교류를 통해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간 다자교류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EAR(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는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방정부가 모여 결성된 후 회원가입이 증가해 몽골, 북한 포함 6개국의 정회원 82개, 준회원 2개, 특별회원 1개, 옵서버 5개 등 90개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의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0978@naver.com

저작권자 © 경북브리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 변경

명칭 변경 통한 국제기구 이미지 쉽게 이해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등록 2024년10월06일



▲ 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 변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동북아 6개국 82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 단체 연합(NEAR, 사무총장 임병진)은 10월 8일부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한글 기관명칭 변경은 기존 한글명칭이 13자로 너무 길고, 일반인이 기존 기관 명칭만을 듣고는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라는 성격을 잘 이해 못해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한글명칭을 보고 기관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회원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2026년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10월 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 포항시 장상길 부시장, 역대 NEAR사무총장, 주부산 외교단, 한동대 최도성 총장, 영남대 이경수 부총장, 국내 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 등 80여명이 참석, NEAR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NEAR DAY행사에서 변경 한글명칭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NEAR 임병진 사무총장은 "NEAR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이번 한글 명칭 변경을 계기로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NEAR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의 다자교류플랫폼을 구축, 동북아지방정부 협력을 선도

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화관광 등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다자교류를 통해 해결하는 명실상 부한 지방정부간 다자교류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NEAR(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는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방정 부가 모여 결성된 후 회원가입이 증가하여 몽골, 북한 포함 6개국의 정회원 82개 , 준회원 2개, 특별회원 1개, 옵서버 5개 등 90개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의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